

## 명단

|        | 이름  | 학교 | 학년 | 자기폰           | 엄마폰           | 기타사항 |
|--------|-----|----|----|---------------|---------------|------|
| male   |     |    |    |               |               |      |
| 1      | 김진섭 | 사동 | 6  |               | 010-2462-2818 |      |
| 2      | 남경우 | 아미 | 6  | 010-3697-9317 | 010-4484-5205 |      |
| 3      | 이정현 | 아미 | 6  | 010-2316-8986 | 010-8582-8986 |      |
| 4      | 류지현 | 아미 | 6  | 010-8338-1189 | 010-3480-9119 |      |
| 5      | 황주형 | 아미 | 5  | 010-2267-1063 | 010-2240-1063 |      |
| 6      | 윤동주 | 아미 | 5  | 010-6240-0544 | 010-8634-0544 |      |
| 7      | 이현석 | 아미 | 5  | 010-5540-7551 | 010-9122-7551 |      |
| 8      | 이현준 | 신하 | 4  | 010-6387-5733 | 010-6318-5734 |      |
| 9      | 이하람 | 아미 | 4  | 010-6490-2674 | 010-2770-2684 |      |
| 10     | 김동영 | 아미 | 4  | 010-3198-3641 | 010-8997-3641 |      |
| 11     | 정세한 | 아미 | 3  |               | 010-9301-4485 |      |
| 12     | 문성현 | 아미 | 3  |               | 010-6555-5318 |      |
| 13     | 방준석 | 사동 | 3  | 010-5932-9744 | 010-9947-2822 |      |
| 14     | 홍진우 | 아미 | 2  |               | 010-9266-2698 |      |
| 15     | 남윤성 | 아미 | 2  | 010-2596-0402 | 010-8924-0402 |      |
| female |     |    |    |               |               |      |
| 1      | 박성현 | 금암 | 5  | 010-5572-3245 | 010-3502-3414 |      |
| 2      | 서다은 | 아미 | 5  | 010-7125-0664 | 010-9984-8212 |      |
| 3      | 김윤희 | 아미 | 5  | 010-3910-7075 | 010-6399-2034 |      |
| 4      | 김진서 | 사동 | 4  |               | 010-2462-2818 |      |
| 5      | 김보경 | 사동 | 4  |               | 010-4269-2175 |      |
| 6      | 남서연 | 아미 | 4  | 010-2596-0402 | 010-8924-0402 |      |
| 7      | 김소은 | 사동 | 4  | 010-9323-2516 | 010-3502-2516 |      |
| 8      | 장서윤 | 아미 | 4  | 010-8859-9871 | 010-3187-3359 |      |
| 9      | 이주원 | 아미 | 3  |               | 010-2888-7673 |      |
| 10     | 전노엘 | 아미 | 3  | 010-3743-6521 | 010-3743-6521 |      |

|   | 이름  | 학교 | 학년 | 자기폰           |  |  |
|---|-----|----|----|---------------|--|--|
| 1 | 박행신 |    |    | 010-4177-9812 |  |  |
| 2 | 김은환 |    |    | 010-4188-9812 |  |  |
| 3 | 김광래 |    |    | 010-8760-2460 |  |  |
| 4 | 최기욱 |    |    | 010-4259-0392 |  |  |

## 월요일

이천현대교회 2시30분 출발 → **전라남도** → **진도** → 남도  
석성 → 윤림산방 → 전왕 온묘 → 진돗개연구소 → 용장  
산성 → 벽파진 → 녹진전망대 → 명량해협 → **해남** → 땅  
끝마을 → **완도** → 장도(청해진) → **해남** → 녹우당 → 숙  
소

## 화요일

오전 5시30분 기상 → **강진** → 다산초당 → 영랑(김윤식)  
생가 → **광주** → 국립 5·18민주묘지 → **달양** → 소재원 →  
가사문학관 → **광주** → 환벽당 → **달양** → 식영정 → 명옥  
헌 → 송강정(죽록정) → 면양정 → 죽물박물관 → 죽물시  
장 → 관방제림 → 죽녹원 → 숙소

## 수요일

오전 5시30분 기상 → **달양** →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  
**과창** → 고창읍성 → 도산리 고인돌 → 고인돌박물관 → 고  
창고인돌군 → 환벽당 → **정읍** → 동학혁명모의탑 → 고부  
관아터 → 황토현전적지 → 녹두장군 전봉준옛집 → 말목  
장터 → 만석보터 → **이천** → 현대교회

## 첫째 날

### ■ 진도

전라남도 서남단 해남반도 남서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섬 (제주도-거제도-진도-강화도-남해도-안면도-완도)이다.

### ■ [redacted] ; 사적 제127호

고려 원종 때 배중손이 진도에 와서 4년간 몽골에 항쟁할 때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성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여겨지며, 현재 남아 있는 성은 남도포에 만호부가 처음 생긴 것이 조선 세종 20년 정월이므로, 1438년 이후에 축성하였다고 생각된다. 숙종 이후에는 남도 수군의 근거지가 되었다.

### ■ [redacted] ;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4

조선 후기 화가 허유가 만년에 기거하던 화실로, 윤림산방이란 이름은 침철산 주위에 수많은 봉우리가 어우러진 깊은 산골에 아침, 저녁으로 피어 오르는 안개가 구름숲을 이룬 모습을 보고 이름 지었다 한다.

진도 출생인 소치는 28세 때부터 지금의 대흥사인 두륜산방 초의선사 밑에서 공제 윤두서의 화첩을 통해 그림을 익히기 시작하여, 33세 때 초의선사의 소개로 추사 김정희에게 본격적인 서화수업을 받기에 이르렀다.

소치가 40세되던 1847년 낙선제 헌종 앞에서 그림을 그렸고, 흥선대원군, 권돈인, 민영익, 정학연 등을 비롯하여 권문세가들과 어울리며 사·서·화를 즐겼다. 소치는 1856년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윤림산방을 짓고 화실을 만들어 여생을 보냈다.

- 소치허공 기적비 ; 윤림산방에 있는 소치 허유선생 기적비
- 윤림산방의 연못 ; 윤림산방 앞의 연못. 중간의 작은 섬에는 허유선생이 직접 심은 배롱나무가 있다.

■ [redacted] ;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산 45

이 골짜기는 고려 중기 삼별초군이 용장산성(사적 126)에서 쫓겨와 격전을 벌인 곳이다. 당시 이곳이 삼별초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핏기내·피내·혈천’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이곳을 여몽연합군의 지휘자인 ‘홍다구가 싸운 곳’이란 뜻으로 다근투골이라 불렀으며 이곳에서 왕온은 아들 왕항과 함께 적장의 손에 죽었다.

■ [redacted] ; 천연기념물 제53호

한국고유의 개 특산종인 진돗개의 키는 수컷이 50~55cm이고, 암컷은 45~50cm이며, 털 빛깔은 황색과 백색의 2종류가 있고, 얼굴은 정면에서 보면 거의 팔각형이며, 목은 굵어서 힘이 있고 다부지게 보인다. 네 다리는 강건하고 앞다리는 곧지만 뒷다리는 뒤쪽으로 뻗는다. 등 면은 곧고 꼬리에는 털이 많으며, 힘이 있고 생후 3개월이면 꼬리를 감기 시작한다. 감각이 매우 예민하고 용맹스러워서 집도 잘 지키지만 사냥에도 적합하다. 현재는 문화재관리법과 한국진도견 보호육성법에 따라 보호 육성되고 있다.

- 영국의 KC(Kennel Club) : 2005년 5월 10일 197번째 공인견종으로 인정
- 국제축견연맹인 FCI : 2005년 7월 6일 334번째 공인견종으로 인정

■ [redacted] ; 사적 제126호.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1270년(고려 원종 11년) 8월 삼별초를 이끌던 고려의 장군 배중손이 쌓

은 산성이다. 고려 장군 배중손이 이끈 삼별초군이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던 성내에 용장사지·행궁지가 남아 있다. 배중손은 삼별초군을 이끌고 강화에서 이곳에 들어와, 관부·영성을 쌓고 고려와 원나라에 저항하였으나, 김방경이 이끈 관군에게 패하였다.

- 삼별초 항쟁에 대하여

30여 년 동안 몽고의 침입을 6차례에 걸쳐 받았던 고려는 고종 46년 태자 전을 몽고에 입조시킴으로써 몽고와의 전쟁을 끝냈다. 고려는 몽고와의 교섭을 통하여 원종 11년(1270) 5월 개경으로 환도를 단행하고 강화도성을 파괴하였다. 몽고의 출륙요구에 저항하던 삼별초는 고려정부에 의해 혁파되고, 그 명부가 압수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삼별초군은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난을 일으켰다. 이것이 소위 삼별초의 난이었다.

삼별초는 최우에 의해 조직되었다. 삼별초는 최우가 나라 안에 도둑이 많음을 걱정하여 용사를 모아 밤마다 돌아다니며 폭력을 금하게 하였는데, 야별초라 이름하였다. 도둑이 여러 도에서 일어남으로 별초를 나누어 파견하여 잡게 하였다. 야별초는 그 수가 많아지면서 좌우별초로 나누어졌다. 또 몽고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국민들이 돌아오자 그들을 중심으로 신의군을 편성하였다. 좌우별초와 신의군을 합쳐 삼별초라 하였다.

삼별초는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민의 반란을 진압하거나 폭력을 금지하는 등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삼별초는 몽고의 침입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러한 삼별초의 군사들은 몽고에 대한 항복은 그들의 존재를 부정함과 동시에 고려정부나 몽고로부터 배척받을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던 중 삼별초가 개경천도를 결정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혁파되고 그 명부가 몽고군에 넘겨지자 백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국민의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결집하여 항몽 전선을 구축하였다.

삼별초는 개경에 환도를 단행한 원종과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삼별

초는 원종 11년 6월 3일 강화를 떠나 8월 진도에 도착하였다. 이때 삼별초 군인들은 1000여척의 배를 이용하였다. 당시 삼별초 군인들의 세력 규모를 엿 볼 수 있다.

진도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한 삼별초는 용장성을 중심으로 도읍을 건설하였다. 궁궐과 도성은 현존하지 않으나 용장산성의 둘레가 13km에 이르며 성안에는 남북 9단 동서 3단의 석축과 건물터 등이 남아있다. 삼별초는 용장성의 산성을 개축하고 용장사를 왕궁으로 삼아 각종의 건물을 짓고 왕을 황제라 칭하였다. 오랑이라는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였다. 삼별초는 개경의 고려 왕실과 별도의 진도정부를 성립하였던 것이다.

승화후 온을 왕이 아닌 황제라 칭한 것은 고려의 국왕인 원종보다 그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몽고와 대등하다는 의식을 대내외 과시하려고 하였다고 생각된다.

삼별초가 진도를 새로운 근거지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섬 안의 땅은 기름지고 넓은 평야지대여서 농업이 활발하였다. 그러므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삼별초가 장기간 항전하는데 유리하였다.
- 둘째, 진도의 주위는 바다이며 육지와 섬 사이에는 명랑해협으로 유속이 빨라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 셋째, 진도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거둬진 조곡을 조운을 통하여 개경으로 운반하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별초는 진도를 장악함으로써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개경으로 운반되는 조곡선을 탈취할 수 있었다.
- 넷째, 진도는 서남해안의 해상권 장악과 일본, 중국의 남부와 통교하는데 유리하였다. 그러므로 삼별초는 일본이나 남송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가진 진도를 장악한 삼별초는 남해안을 장악하

기 위하여 진도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를 점령하였다. 즉 삼별초는 원종 11년(1270) 11월 진도에 도읍을 정한지 3개월 후 탐라(제주도)를 장악하였다. 제주도는 진도의 삼별초에게 배후 거점지역이었다. 이로써 삼별초는 현 전라도의 서남해는 물론 멀리 제주도에 이르는 해상권을 완전 장악하였다.

진도정부는 승화후 온을 황제로 삼아 9개월이나 독자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동안 전라도 일대와 경상도 남부 지역이 진도정부의 세력권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경제적 협력으로 진도정부는 존속할 수 있었다.

삼별초의 힘이 이렇게 커지자 두려움을 느낀 고려와 몽고는 연합군을 만들어 진도로 들어간 삼별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려 김방경과 몽고의 아해가 이끄는 연합군은 삼별초의 기세에 밀려 두 번이나 싸움에서 패한 후 물러나고 말았다.

삼별초가 진도의 용장성에 들어온 지 아홉 달이 지난 후 고려의 김방경과 몽고의 홍다구는 군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세 번째로 공격을 해왔다. 10여 일이 넘게 계속된 격렬한 싸움에서 삼별초의 온 왕은 쫓겨가다 죽었고 배중손 장군도 진도의 남쪽에 있는 남도석성으로 밀려났다가 전사하였다. 지금도 진도 의신면에는 ‘왕무덤’이라 불리는 온 왕의 무덤이 남아 있다.

한편 배중손 장군이 죽자 새로 김통정 장군의 지휘 아래 뭉친 삼별초는 진도를 떠나 제주도로 옮겨가 새로운 터전을 준비했다. 삼별초는 제주도에도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튼튼히 쌓아 기어이 몽고 오랑캐들을 이 땅에서 쫓을 생각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삼별초는 원종 14년(1273) 4월에 1만여 명의 고려와 몽고 연합군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았다. 삼별초가 세계를 정복한 몽고를 상대로 이처럼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자주 정신 때문이다.



국방상 중요지역의 하나였던 진도의 관문 역할을 하던 곳으로, 임진왜란 (1592)·정유재란(1597) 때에는 수군 영을 두었으며 이순신의 전첩비가 있다.



； 녹진전망대(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 2-78)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해협이며, 울돌목이라고도 한다.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는 293 m. 조수의 시속은 평균 16마일에 이르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를 이용하여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 명량대첩

명량대첩은 1597년 9월 정유재란 때 조선 수군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쳐부순 싸움이다. 이순신이 통제사에서 물러난 뒤 원균은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어 일본 수군과 대전했으나 다대포·칠천곡에서 대패하여 해상권을 상실하였다. 원균의 패전으로 같은 해에 의종군 중인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통제사로 기용하였다.

이때 이순신은 패전 후 남은 13척의 전선과 수군을 정비하여 닥쳐올 전투에 대비하였다. 8월 왜선 8척이 남해 어란포에 출현하자 이를 격퇴하고, 진을 진도 벽파진으로 옮겼다. 9월 7일에는 서쪽으로 이동하던 왜선 55척 중 호위 적선 13척이 어란포에 나타나자, 한밤중에 이순신이 선두에서 지휘하여 적선을 격퇴시켰다.

다시 적의 함대가 어란포에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9월 15일에 벽파진에서 우수영으로 진을 옮긴 뒤 장병들에게 “必死即生, 必生即死”(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말하고 필승의 신념으로 적의 내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9

월 16일 왜선 133척이 어란포를 떠나 명량으로 공격해오자, 13척의 전선과 군사를 정비하여 구루시마 미치후사와 도도 다카토라가 지휘하는 왜선 31척을 무찔렀다. 이 싸움으로 조선은 다시 해상권을 회복하였다.

## ■ [redacted]

한국 최초의 사장교이다. 울돌목 해협은 초속 6m의 거센 조류가 흘러, 물속에 교각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양쪽 해안에 높이 각각 69m의 강철교탑을 세우고, 강철 케이블로 다리를 묶어 지탱하는 사장교 형식을 취했다.

## ■ [redacted]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한반도의 최남단 마을로 토말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함북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유원진과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사선으로 이어져, 극남과 극북을 이룬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 따르면, 해남의 땅 끝에서 서울까지 1,000리, 서울에서 극북의 온성까지 2,000리를 헤아려, 이로부터 ‘3,000리 강산’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 ■ [redacted]

통일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섬으로 간석지가 넓고 기후 조건이 좋아 전국 제일의 수산양식지로 꼽힌다.

## ■ [redacted] ; 물 빠지는 시각 15:13 국립해양조사원

통일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일본과 무역하던 곳이다. 장보고는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중국과 일본 해로의 요해처인 청해에 진을 설치하고 가리포에 성을 쌓아 항만을 보수하여, 전략적 거점

을 마련하였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서남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한 그는 당시에 성행하던 중국의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들어 동방무역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 [redacted] ; 사적 제167호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

조선 중기의 문신 윤선도의 고택이다. 집채는 서향, 대문은 남향, 안채에는 3칸의 대청과 대청 북단에 서향한 2칸의 마루방이 있고, 마루방 서쪽에 작은 온돌방이 2칸 이어져 안방을 이루고, 그 끝에 큰 부엌이 붙어 있다.

- [redacted] ; 해남 윤씨의 종택으로 대문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옆으로 나 있다.
- 안채 뒷길 ; 안채 뒷길인 사당에서 추원당으로 가는 길은 수풀로 우거져 있다.
- 녹우당 [redacted] ; 행랑 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한 문.
- 녹우당 [redacted] ; 옛날 대가에서는 행랑채를 길게 짓고 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를 행랑이라 하였다. 행랑에는 대개 노비 등이 거주했기 때문에 '행랑아범' '행랑어멈'이라는 말이 있다.
- 녹우당 [redacted] ; 해남 윤씨 종택의 사랑채로 처마 전면에 높은 차양이 달려 있다. 사랑채는 윤선도가 수원에 있을 당시 효종이 스승이었던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을 1669년에 해남까지 옮겨온 것이다. 가옥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문을 들어서면 하인들이 거처하는 행랑이 있고, 조금 떨어져서 손님방으로 사용하는 수랑, 그리고 아 이들이 쓰는 작은사랑, 웃어른이 거처하는 큰사랑이 있는데, 작은사랑·큰사랑을 함께 사랑이라고 한다.
- [redacted] ; 녹우당 사랑채에 걸려 있는 현판. 잡초를 가려 뽑아 숲을 무성하게 한다는 윤(耘)과 일, 학문, 기예를 의미하는 업(業). 녹우당 선대 당주들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 녹우당 [redacted] ; 해남 윤씨 종택인 녹우당은 바람이 불면 뒷편의

비자나무숲 소리가 마치 비 내리는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판은 공재 윤두서와 절친했던 옥동 이서가 쓴 것이다.

- 안채 담장 ; 안채는 현재 해남 윤씨 종손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다.
- 입구의 \_\_\_\_\_ ; 해남 윤씨 종택 입구에 있으며, 1543년경에 고산 윤선도가 거주 하면서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녹우당 \_\_\_\_\_ ; 녹우당 안에 있는 고산 윤선도를 받드는 사당
- 어초은사당 : 증조인 윤희정을 모신 어초은 사당이 있다.
- 공재 \_\_\_\_\_ : 윤선도의 증손이다. 그의 아들은 윤덕희이고 그의 외손자가 다산 정약용이다.

- 고산 윤선도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고, 1616년 성균관 유생으로 권신 이이첨 등의 횡포를 상소했다가 함경도 경원 등지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의금부도사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하여 여러 관직에 임명된 것을 모두 사퇴했다. 1628년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 왕자의 사부가 되어 봉림대군(孝宗)을 가르쳤다.

1629년 형조정랑 등을 거쳐 1632년 한성부서윤을 지내고 1633년 증광문과에 급제, 문학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고 파직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하지 않았다가하여 영덕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은거했다.

1652년(효종 3) 왕명으로 복직, 예조참의 등에 이르렀으나 서인의 중상으로 사직했다가 1657년 중추부첨지사에 복직되었다. 1658년 동부승지 때 남인 정개청의 서원 철폐를 놓고 서인 송시열 등과 논쟁,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 당했다. 1659년 남인의 거두로서 효종의 장지문제와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가지고 서인의 세력을 꺾으려다가 실패, 유배당하였다.

그의 일생은 은둔과 풍류의 즐거움으로 자족하였지만, 출사와 유배, 은둔이 거듭되고 희비가 교차하는 생애였다. 다시 말해 '시련과 극복', '득의와 풍류', '고난과 개척'으로 교직된 평생이었다.

고산은 유배에서 풀려난 2년 뒤인 1671년 6월 11일 완도군 보길도 낙서제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 85세였다. 확고한 자기 주관을 설정하고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조선 지성인의 한 전형인 윤선도, 무수히 남긴 그의 시편들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도모하게 하며 문학의 본질적 사명을 일깨워 준다.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에 해박하고 의약·복서·음양·지리에도 통하였으며, 특히 시조에 더욱 뛰어났다. 그의 작품은 한국어에 새로운 뜻을 창조하였으며 시조는 정철의 가사와 더불어 조선시가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사후인 1675년(숙종 1) 남인의 집권으로 신원되어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저서에 《고산유고》가 있다

• 윤선도의 \_\_\_\_\_

내 버디 몇치나 하니 水石(수석)과 松竹(송죽)이라  
東山(동산)의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빛기 또 더하여 머엇하리

<水>

구름빛치 조타 하나 검기랄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흠 뉘 업기난 물뿐인가 하노라

<石>

고즌 므스 일로 뛰며셔 쉬이 디고  
플은 어이 하여 프르난 닷 누르나니  
아마도 변티 아닐산 바회뿐인가 하노라

<松>

더우면 곳 피고 치우면 님 디거

술아 너난 얻디 눈서리랄 모라난다  
九泉(구천)의 불희 고단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竹>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난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난다  
더러코 四時(사시)에 프르니 그를 도하 하노라

<月>

자근 거시 노피 떠서 만물을 다 비취니  
밤동의 光明(광명)이 너만하니 또 잇나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벌인가 하노라

현대어 풀이

[1]

나의 벗이 몇이나 있느냐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다.  
게다가 동쪽 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로구나.  
그만 두자, 이 다섯 가지면 그만이지 이 밖에 다른 것이 더 있을들 무엇  
하겠는가?

[2]

구름의 빛깔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가 맑게 들려 좋기는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깨끗하고도 끊어질 적이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3]

꽃은 무슨 까닭에 피자마자 곧 저 버리고,  
풀은 또 어찌하여 푸르러지자 곧 누른 빛을 띠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4]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날씨가 추우면 나무의 잎은 떨어지는데,  
소나무여, 너는 어찌하여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변함이 없는가?  
그것으로 미루어 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어 있음을 알겠노라.

[5]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게 자라기는 누가 그리 시켰으며,  
또 속은 어이하여 비어 있는가?  
저리하고도 네 계절에 늘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노라.

[6]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바추니  
한밤중에 광명이 너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느냐?(없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벗인가 하노라

#### ■ 숙소

플러스 무인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산로 134-11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75-15

061-535-5555

## 둘째 날

■ [redacted] ;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33-1

그는 1801년(순조 11)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 동안 귀양살이 중 10년을 이 별서에서 정원을 꾸며가며, 학자로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다. 방지와 정석·화단이 초당을 중심으로 놓여 있다. 남해의 그림 같은 전경을 볼 수 있는 지점에 정자를 배치하는 등,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한국 전통정원의 표본이다.

- 다산 정약용

1776년(정조 즉위) 남인 시파가 등용될 때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가환 및 이승훈을 통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보고, 그 학문에 감동되었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고, 1784년 이벽에게서 서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교인이라 하여 같은 남인인 공서파의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와 기중가설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있을 때 주문모사건에 둘째 형 약전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규장각의 부사직을 맡고 97년 승지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아 자명소(自明疏)를 올려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 후 곡산부사(谷山府使)로 있으면서 치적을 올렸고, 1799년 다시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그를 아끼던 정조가 세상

을 떠나자 1801년(순조 1)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그곳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체계는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의 기술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 정약용에게 본받을 점

실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백성이 배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실천했다. 목민심서를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하여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경세유표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고 흠휼신서를 통해 죄인을 다스리는 형벌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지방관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여 백성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살도록 노력한 점이 본받을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 화성건축 : 건강한 부역의 실천
- \_\_\_\_\_ : 각종 행정 기구와 국가 경영 일반에 관한 모든 제도와 법규
- \_\_\_\_\_ :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힌 책
- \_\_\_\_\_ : 형법 연구서이며 살인 사건의 실무 지침서
- 마과회통 : 다산이 직접 걸렸던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6명의 자식의 목숨을 빼앗긴 홍역에 대한 연구서
- 정약용의 제자였던 윤중진의 묘 앞에 있는 동자석
- \_\_\_\_\_ ; 조선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간의 유배생활 중 10년을 머문 곳으로 초가집이었던 것을 1957년 화재

이후 기와로 복원하였다.

- 다산초당 현판 -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해서 만든 것
- 보정산방 현판 - 정약용을 보배롭게 모시는 산방
- 추사 김정희는 정약용보다 24년 연하였지만 평소 그를 몹시 존경했다고 한다.

- \_\_\_\_\_ ; 다산이 기거하던 곳
  - 다산동암 현판 ; 다산의 글씨는 집자해서 만들었다.
- \_\_\_\_\_ ; 제자들이 기거하던 곳
- \_\_\_\_\_ ; 스스로 만든 연못
- \_\_\_\_\_ (丁石) ; 앞마당의 넓적한 바위, 집 뒤의 샘, 그 뒤편의 바위에 새긴 다산의 글씨 바르게 살겠다는 그의 결의와 다산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_\_\_\_\_ ; 황사영 백서사건 이후 흑산도로 유배를 간 형 정약전을 그리면 멀리 바다를 내다보던 곳  
다산이 학문을 하다가 잠시 쉬거나 유배지의 외로움을 달래던 곳이다.
- 황사영 \_\_\_\_\_ ; 명주천에 썼기 때문에 백서라고 한다. 1801년 조선을 충격에 빠뜨린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신유박해로 조선의 천주교가 위기에 처하자 황사영 등이 북경의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몹시 충격적이었다. 백서에서 황사영은 천주교를 되살릴 대책으로 '칭이 조선 조정에 압력을 가하거나 조선을 성으로 편입시키거나, 서양의 천주교 국가들에게 호소하여 군사 수만과 배 수백 척으로 조선을 협박하거나 정복한다.'고 하였다. 이 일로 황사영을 참형을 당하였다.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사위였다.
- \_\_\_\_\_ :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가가 처형 또는 유배되고,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었다.

■ \_\_\_\_\_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번지

한국 현대문학 초창기의 시인 김영랑(본명 김윤식)의 생가이다. 영랑은

우리나라 순수시, 서정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6·25전쟁 때 서울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은신해 있다가 9.28수복 때 파편에 맞고 이튿날 죽었다 (47세).

대체로 영랑 생각을 둘러보면 20세기 초 우리나라 지주집안이 누렸던 삶의 여유와 윤택함을 어렵게나마 느낄 수 있다. 대개 조선시대나 식민지 시대 지주들의 집은 자기 소유의 논밭을 한눈에 굽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 영랑생가의 터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영랑의 집안이 작인들에게 군림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는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가고 말아  
삼백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른 부끄럼같이  
 詩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redacted] ; 광주 북구 운정동 산34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산화한 영령들을 모신 묘역이다.

■ [redacted] ; 사적 제304호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조광조의 제자 소쇄 양산보가 담양에 건립한 정원이다. 기묘사화로 인하여 스승인 조광조가 능주(전남 화순)로 유배 가서 사약을 받고 죽자 스승을 따라 능주로 갔던 양산보가 고향으로 돌아와 55세로 죽을 때까지 자연에 묻혀서 지냈다. 이때 지은 별서가 소쇄원이다.

- [redacted] ; 1519년(중종 14) 남곤·홍경주 등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 등의 [redacted] 신진 사류가 축출된 사건.
- [redacted] ;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말로 양산보는 별서의 이름을 소쇄라 하였고, 자신의 호를 소쇄옹이라 하였다.
- [redacted] ; 소쇄원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초가로 이것에서 보면 소쇄원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 [redacted] ; 이 부근의 별이 유난히 바르다는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 겨울 계곡의 물이 다 얼어 있어도 이곳의 눈을 녹았다고 한다.
- [redacted] ; 담 밑으로 널찍한 바위를 걸쳐 놓아 소쇄원으로 흘러드는 냇물이 자연 그대로 흐르도록 하였다. 다섯 번 굽이 돈다해서 오곡문이다. 외나무다리를 건너게 된다.

- \_\_\_\_\_ (꽃 계단) ; 비탈의 침식을 막기 위하여 화계를 만들고 매화를 심었다. 매대 뒤의 담에는 “소쇄처사 양공지려”(소쇄처사 양공의 조출한 집)이라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가 박혀 있다.
- \_\_\_\_\_ ; 소쇄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물로 사랑채와 서재를 겸한 건물이다. 제월당은 주인의 사생활 공간이다.
- \_\_\_\_\_ ; 소쇄원의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중심공간이다. 광풍각이란 “가슴이 품을 뜻이 맑고 맑음이 마치 비 갠 뒤 벌이 나며, 부는 바람과 같고, 맑은 날의 달빛과 같다”는 중국의 글에서 따온 말이다. 이곳에는 당대의 이름있는 문인과 선비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 가사문학이란?

#### 1) 정의 :

고려 말 경기체가가 쇠퇴하고, 시조가 형태를 갖추어 조선 초에 이르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창작되고 있을 무렵을 전후하여 나타난 장르로서, 시조와 더불어 사대부사회에서 널리 창작된 노래를 말한다.

#### 2) 형식 ;

- ① 3(4)·4 조의 연속체로, 4음보로 된 운문이다.
- ② 마지막 행은 대체로 시조의 종장과 일치한다.
- ③ 시조의 종장처럼 된 가사 형식을 정격 가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 가사라 한다.

#### 3) 내용 ;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심정을 읊은 서정적인 것과 임금에 대한 은총, 기행 등 서사적 성격의 특성이 보인다.

#### 4) 가사의 발생 ;

- ① 가사의 발생에 대해서 조운제는 성종 때 정극인의 상춘곡을 그 효시

로 보았고, 이병기는 고려 말 나옹 화상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서왕가'를 그 효시로 보았다. 여말에는 아직 한글이 창제되지 않아 '서왕가'와 같은 장문(長文)의 노래가 구전되다가 기록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 왔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 나옹 화상의 '심우가'가 발견됨에 따라, 여말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됨.

- ② 가사는 전후로 분절되는 특징을 가진 경기체가에서 파생된 형식으로 보인다. 종래의 문학 형태인 시조나 경기체가는 형식상으로 제약이 많아서 자유롭게 생활 감정이나 자연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중세 이후 팽배해 오던 산문 정신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다.
- ③ 이렇게 시작된 가사는 부녀자들의 내방 가사와 조선 후기 서사적 성격의 많은 기행 가사 등을 남기며 개화기의 개화 가사에까지 이르게 된다.

#### 5) 가사의 발달 ;

'상춘곡'은 고향으로 은거하여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사대부의 낙천적인 정취를 그리고 있다. 가사 문학은 '상춘곡'에 이어 송순의 '면앙정가'와 백광홍의 '관서별곡' 등을 거쳐 송강 정철에 와서 결정에 이른다.

#### 6) 전기 가사의 주요 작품

- ① 상춘곡(정극인) ; 태인에 은거하면서 상춘과 안빈낙도를 읊음. 가사의 효시.
- ② 면앙정가(송순); 면앙정 주위의 산수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노래함.
- ③ 관서별곡(백광홍); 관서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음.
- ④ 성산별곡(정철); 김성원의 풍류와 성산의 풍물을 노래함.
- ⑤ 관동별곡(정철); 관동의 산수미에 감회를 섞은 기행 가사.
- ⑥ 사미인곡(정철) ; 충신 연모의 정을 비유적으로 읊은 연군가.
- ⑦ 속미인곡(정철) ; 두 여인의 문답형으로 된 연군가. '사미인곡'의 속편.
- ⑧ 규원가(허난설헌) ; 홀로 규방을 지키는 여인의 애원을 우아한 필치로 씀.

■ [redacted] ; 광주 북구 충효동 387

조선 중기의 문신 김윤제가 을사사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별당으로 그는 이곳에 자연을 벗 삼아 후학을 가르치며 말년을 보냈다. 그의 제자로는 정철과 김성원 등이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목조와가이다. 송강 정철이 27세에 급제하기 까지 10여 년 동안을 머물며 공부하던 곳으로 송강정, 식영정과 함께 정송강 유적으로 불린다.

- 정철의 성산별곡에는 환벽당 주변의 산수경관이 담겨 있다.
- [redacted] ; 환벽당 아래의 창계천가에 있는 큰 바위인데, 김윤제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과 낚시를 즐겼다는 곳이다. 멀리 보이는 뾰족한 산이 성산(별묘)이다. 조대 앞이 정철이 목욕을 하다가 김윤제를 만났다는 용소이다.
- 원래 푸른 대숲이 있어서 환벽당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대숲은 없어지고, 인상적인 목 백일홍(배롱나무)가 남아 있다.

■ [redacted] ;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정자인데, 후에 정철의 성산별곡의 밑바탕이 정자이다. 성산의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식영정은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 유적이라고 불린다. 식영정은 원래 16세기 중반 서하당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라고 한다. 식영정이라는 이름은 임억령이 지었는데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그림자는 언제나 본체를 따르기 마련이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본체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 [redacted] ;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성산 주변의 풍경과 그 속에서 노니는 식영정의 주인인 김성원의 풍류를 그리고 있다.

- 모두 84절 169구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① 서사 ② 춘경 ③ 하경 ④ 추경 ⑤ 동경 ⑥ 결사로 나뉜다.
- \_\_\_\_\_ ; 식영정의 아래 있다.
- 부용당 뒤에 김성원이 거처하던 서하당 터가 있다.
- \_\_\_\_\_ ; 송강집의 목판을 보존하기 위한 건물
- 이 근처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았지만 광주호의 준공으로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다.

■ \_\_\_\_\_ ;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3번지

소쇄원과 더불어 아름다운 민간 정원으로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담아낸 조상들의 소담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명옥헌은 오이정(1619~1655)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오회도)가 살던 곳에 계류를 이용한 위 연못과 아래 연못을 축조하고, 그 연못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정자를 지어 이룬 것이다. 명옥헌(鳴玉軒)이란 이름은 한천의 흐르는 물소리가 옥이 부서지는 소리 같다고 한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 배롱나무 ; 명옥헌의 주변에는 고목이 된 소나무와 배롱나무가 둘러서 있어서 정자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 명옥헌의 \_\_\_\_\_ ; 백일홍은 어느 한 철 며칠 눈부시도록 화사하게 피었다가 냉정하게 꽃잎을 떨궈버리지 않는다. 무려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꽃을 피운다. 그것도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 꽃을 피워낸다.
- 꽃을 피우는 기간이 긴 만큼 배롱나무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린다.
-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이라 한다.
- 나무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다.
- 이 꽃이 지면 벼가 다 익는다고 해서 '쌀밥나무'라고도 한단다.

■ [redacted] ;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74

정철이 대사헌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4년간 머물면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비롯하여 많은 시가와 가사를 지었다.(선조) 정철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당시에는 이 초막을 죽록정(竹綠亭)이라 불렀다 한다. 지금의 정자는 1770년에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그때 이름을 송강정이라 하였다.

사미인곡은 제명 그대로 연군지정을 읊은 노래이다. 임금을 사모하는 심경을 남편과 이별하고 사는 부인의 심사에 비겨 자신의 충정을 고백한 내용으로 아름다운 가사문학의 정취가 배어나는 글이다. 이 시기에 정철은 실의에 빠져 세상을 비관하고 음주와 영탄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 [redacted] ;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402

1533년 송순이 건립한 정자로 이황을 비롯하여 강호제현들과 학문을 논하며 후학을 길러내던 곳이다.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면양정가를 지은 곳이기도 하다. 송순은 면양정에서 면양정가단을 이루어 많은 학자·가객·시인들의 창작 산실을 만들었다. 정자 안에는 이황·김인후·임제·임역령 등의 시편들이 판각되어 걸려 있다.

■ [redacted]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1-1

예로부터 대나무고을[竹鄕]로 널리 알려진 담양군이 1966년 죽세공업품의 보존·전시, 기술정보의 교환, 판매 알선을 위해 '죽세공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潭州里)에 설립하였다. 1981년 죽물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8년 담양읍 천변리에 조성된 대나무 관련 종합관광단지 내로 이전하였으며, 2003년 3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 [redacted] ;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 셋째 날

■ [redacted] ; 사적 제145호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조선 초기의 성곽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이다. 모양성이라고도 한다. 둘레 1,684m. 모양성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백제 때 모량부리였던 것에서 유래된 듯하다. 축조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계유년에 호남의 여러 고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축성하였다고 성벽에 새겨져 있다.

- 문과 \_\_\_\_\_
- 공창읍성의 관청
- \_\_\_\_\_ ; 한양에서 온 손님들이 묶는 곳
- \_\_\_\_\_ ; 동헌 뒤 소나무 숲에는 축성 당시 심었다는 거대한 소나무 두 그루가 위용을 뽐내고 있다. 용틀임하듯 굽이치는 가지들이 장관이다.
- \_\_\_\_\_ ; 1930년대 한 스님이 심었다는 뽕뽕한 맹종죽(중국 원산의 관상용 대나무) 숲도 볼 만하다.
- \_\_\_\_\_ ; 성을 "한바퀴 돌면 다리 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 승천한다'고 한다. 성을 돌 때는 반드시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세 바퀴 돌아 성 입구에 다시 그 돌을 쌓아 두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여인들이 돌을 날라다 성을 쌓은 것에서 비롯된 전통놀이이다.

■ [redacted] ;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536

이곳에는 북방식 1기를 비롯해 부근에 남방식 3기, 개석식 1기가 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숲으로 둘러싸인 민가 뒤뜰에 자리 잡고 있어 보기 좋은 장면을 이룬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0여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 ① 세계문화유산·자연유산 :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유적, 경주역사지구, 조선왕릉,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② 인류무형구전 및 무형유산 : 종묘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사당,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 ③ 세계기록유산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팔만대장경판, 조선왕조이끼, 동의보감
- ④ 생물권보존지역 :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 [ ] ; 사적 제 391호.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에 걸쳐 있는 청동시대 고인돌 군이다. 거의 남방식이지만 드문드문 북방식도 보인다.

■ [ ] : 정읍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언덕

갑오농민전쟁을 모의하던 장소에 세운 기념탑이다.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들이 건립한 혁명모의탑이 있는데, 모의탑에는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들의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은 혁명거사가 논의되고 혁명지도자들의 군은 결의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 마을에 거주하던 송두호의 집에서 전봉준 등 20명의 지도자들이 혁명계획을 마련하였고 또한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 [ ]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61외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 지역을 다스리던 관아가 있던 곳이다. 옛날 고부는 전주부 다음 가는 군이었다. 전주부윤이 종2품이고 현령, 현감이 종5,6품인데 고부군수만은 종4품이었기 때문이다. 수탈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당시 서울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호남에 가

서 벼슬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노래하는 동요까지 나왔다고 한다.

당시 이곳 고부군수로 있었던 조병갑은 규정보다 3배가 많은 토지세를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부호들을 불효, 불목, 음행이라는 무고한 죄로 2천 냥을 수탈했으며, 태인 현감을 지낸 자기 부친의 송덕비를 건립한다 하여 1천 냥을 강제징수 하는 등 갖은 탐학을 자행하자 4227년(1894) 1월 10일 전봉준은 태인 접주 최경선과 고부의 송두호, 김도삼을 비롯한 1,000명의 교도와 농민들을 모아 창동에서 운학, 후지를 거쳐 고부로 이동했고 다른 하나는 장문리를 넘어가는 천치재로 향하여 고부로 진격하였다. 이들은 단숨에 고부관아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했으며 불법 징수한 세금을 환불하였다.

현재의 초등학교 그 어디쯤이었을 고부관아는 주춧돌과 기와조각 하나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향교 내에 있는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은행나무만이 지나간 역사를 말없이 간직한 채 오늘도 서 있다. 초등학교 옆에는 고부향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장봉선의 전봉준실기에는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한 때 이 향교의 장의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redacted] ; 사적 제295호.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2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있는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관군과 처음으로 싸워 대승을 거둔 자리이다. 당시 태인과 고부를 연결하는 요지였다. 1894년 봄 고부군수의 학정에 대항하여 봉기한 농민군은 고부를 점령하고, 1만에 가까운 군세로 백산에 집결하였다. 급보에 접한 전라감사 김문현은 영장 이광양 등에게 영병 250명과 보부상대 수 천 명을 주어 농민군을 소탕하게 하였다.

농민군이 관군을 맞아 황토현 서쪽에 있는 도교산에 진을 치자, 관군은 황토현에서 대치하였다. 4월 6일 밤 농민군이 기습공격을 하여, 이광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병이 전사하였는데, 농민군은 이를 계기로 1개월 만에 호남지방을 석권하였다. 이 고갯마루에는 '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 [redacted] ; 사적 제293호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이 건물은 일명 녹두장군인 전봉준 선생이 동학운동을 일으킬 당시 거주 하였던 집이다. 전봉준 선생은 조선왕조 철종 6년(1855)에 이 지방의 양 반 가문에서 출생, 고종 27년(1890)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서당 훈장으로 있었다. 당시 전국의 농촌은 일부 탐관오리의 학정으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이곳 고부현 역시 군수 조병갑의 만석보 수세 강제징수 등 학정에 시달린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하고 원성이 높았다.

이때 선생은 고부현의 동학 접주로 분노에 찬 농민들과 동학교도의 조직을 이용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保國安民)의 구호를 내세우고 동학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고종 31년(高宗 1894) 갑오 동학혁명 당시 전봉준(1854~1895) 이 살았던 오두막집으로 흙담 4칸 집이다.

그런데 서편으로 한칸을 근래에 붙여 지은 것으로 원래는 방 1칸, 광 1칸, 부엌 1칸으로 당시 우리나라 가난한 농민들이 살았던 전형적인 가옥 형태이다.

■ [redacted] ;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191-2

갑오농민 전쟁이 시작된 장소이다. 말목장터는 농민봉기의 불이 번진 역사적 장소이지만 그날을 되새길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터만 있다. 부안과 태인, 정읍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삼거리에 있는 장터로 1894년 고부 농민봉기의 불이 번진 곳이다. 이미 11월에 농민군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모의를 끝내고 1월 10일 밤 미리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손에 팽이와 죽창을 들고 이곳에 모여 고부관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 갈래의 길로 오가기만 할 뿐이고 그날의 일을 기념할 만한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 옛 장터의 한 귀퉁이에는 감나무만이 가지를 흔들고 있고 1994년 초에 그 옆에 말목정을 세워놓았다.

■ [redacted] ;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17-1

갑오농민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만석보가 있던 곳인데, 고부 군수 조병갑은 이곳에 보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물세를 받았다. 동학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만석보는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멀쩡한 보가 있었음에도 새로이 보를 쌓고, 그 세금을 거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의 상징이었던 탓에 분노한 농민들이 만석보를 부수어 버려 지금은 비석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1892년(고종 29) 전라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이 보를 민정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의 수세를 과중하게 매겨 착복한 것이 700여 석에 달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방법으로 군민의 재산을 착취하였으므로, 이에 분개한 군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삼고 민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만석보유지비 :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만석보가 있던 자리에 만든 기념비. 1894년 전봉준을 선두로 한 농민들이 만석보를 부수으로써 동학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1973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높이 2.5m의 만석보유지비를 건립하였다.

• 녹두장군 \_\_\_\_\_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은 전라북도 고부군 공동면에서 1855년 태어났다. 천안 전씨, 몰락한 양반의 후예인 그는 오척 단신의 작은 체구 때문에 녹두라는 별명을 지녔다. 그의 쏘는 듯한 눈빛은 사람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의 아버지 전창혁은 향교의 장의였으며, 전봉준도 아이들에게 천자

문과 동몽선습 등을 가르치는 훈장이었다. 그의 생활은 몹시 가난해서 논 세마지기 농사에 여섯 식구가 의존, 아침엔 밥을 먹고 저녁엔 죽을 먹는 형편이었다.

그는 1890년 동학에 입도, 고부 접주가 되었다. 동학은 1860년 경주 사람 최제우가 창시한 것으로, 당시 유행하던 천주교, 즉 서학에 맞서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학의 근본 사상은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요 평등하고 차별 없나니, 귀천을 가림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동학은 차별 받은 이, 억눌린 사람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동학에는 삼불입이라는 것이 있다. 곧 양반, 부자, 선비는 들어오지 말라 는 것이다. 동학은 상놈, 노비, 백정 그리고 여성을 위한 종교로 급성장 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곤궁하고 비참했다. 왕 이하 귀족들은 권세 다툼에 눈이 어두워 있고,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라 하여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해 농토를 버리고 떠돌며 빌어먹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게다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외세가 물밀 듯 밀려들어와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일로를 걷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폭정 때문이었다. 1894년 갑오년 음력 정월 10일 새벽, 첫닭이 울자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맨 1천여 명의 농민들이 팽이 혹은 죽창을 들고 모여들었다. 매서운 새벽바람도 잊은 듯 농민군의 사기는 드높았다. 전봉준의 지휘아래 농민군은 단숨에 고부관아를 들이쳤다. 그러나 조병갑은 미리 알아채고 부호은씨 집에 숨었다가 전주로 달아나 버렸다.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갇혀 있던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조병갑이 세금으로 거뒀던 쌀을 빼앗아 도로 나누어주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농민들이 속속 가담해왔다.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오하영, 손여옥 등이 각각 농민군을 이끌고 집결했다.

백산에 진을 치고 정세를 살피던 농민군은 3월 27일 보국안민의 깃발을 올리고 격문을 발표, 행동을 개시했다. 이들의 목표는 전주성이었다.

-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 둘째, 충효를 다하고 제세안민(濟世安民)하라.
- 셋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성도(聖道)를 깨끗이 하라.
- 넷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귀를 멸하라

이는 전봉준이 제창한 농민군의 4대 강령이다. 1만 3천명의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파죽지세로 함락, 마침내 4월 27일 전주로 입성했다.

고종과 민씨 일파는 몹시 당황했다. 민영준은 비밀리에 청나라 군벌 원세개를 만나 청나라 군사를 원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을 완전히 수중에 넣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청은 이때 이미 출병준비를 시작한 뒤였다.

5월2일 군함 2척을 이끌고 청군이 인천항에 상륙했다. 한편 호시탐탐 조선을 장악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도 병력을 급파, 7일 주한 일본공사 오도리가 420명의 병사와 대포4문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왔다. 같은 날 십지초가 이끄는 청군 1천 5백명이 아산만에 도착하고 일본군 6천여 명이 인천, 서울 일대를 장악했다. 일본은 이 기회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일소하고 자국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했다. 그러자 전봉준은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판단,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강화를 제안했다. 마침내 5월9일 전주화약이 맺어지고 농민군은 전주에서 철수했다.

이후 농민군은 호남 일대에 집강소를 세우고 농민자치를 실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청·일 양군은 철수하기는커녕, 저희끼리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일본이 승리를 거둬 조선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게 되고 말았다.

9월 농민군은 다시 일어섰다. 10만 대군을 이루고 항일 구국의 기치를 높이 올린 혁명군은 공주를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10월 21일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죽창으로 싸우는 농민군에게 일본군은 무수한 총알세례를 퍼부었다. 쓰러진 농민군은 500여 명에 달했고 그들이 흘린 피는 냇물이 되어 골짜기에 흘러 넘쳤다. 11월 7일간에 걸쳐 벌어진 공주 공방전은 몹시도 치열했다. 마지막 날, 우금치 전투에서 대포와 총을 앞세운 일본군을 맞아 농민군은 분투했으나 역시 패하고 말았다. 농민군은 논산 방면으로 후퇴했다.

전봉준은 재기를 계획했다. 서울로 잠입하여 내외정세를 살필 생각을 한 그는 순창 피로리에 옛 부하 김경천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정봉준을 주막으로 안내한 뒤 관가에 밀고하고 말았다. 포위당한 전봉준은 쌓아놓은 나뭇단을 밟고 한 발이나 되는 담장을 뛰어넘었다. 순간 잠복하고 있던 관군이 총개머리판으로 그의 발목을 후려갈겼다. 전봉준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12월 2일 밤이었다.

전봉준은 일본군의 감시 하에 서울로 호송되어 일본 공사관 감방에 갇혔다. 전봉준을 두려워한 관군이 일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의 불굴의 투지와 기개에 감복한 일본인들은 그를 회유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썼지만 전봉준은 "구구한 생명을 위해 살길을 구함은 내 본의가 아니다" 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섯 차례 법정 심문을 받고 1895년 3월 29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나이 41살이었다.